

원불교의 민족운동



박맹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원의 민족운동으로 나타났다. 저축조합운동은 19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소태산의 수제자 8인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출역(=공동노동), 시미저축(匙米貯蓄), 금주단연(禁酒斷煙), 허례폐지 등의 실천을 통해 자금을 축적해 갔다. 이 같은 운동은 1900년대의 국채보상운동이나 금주단연운동과 같은 경제적 민족운동에 비견할 만한 운동이었다.

원불교 성립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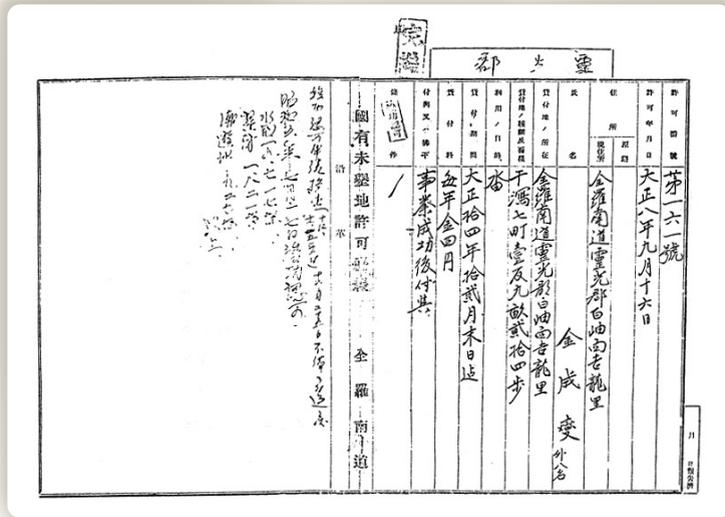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약함) 대중사의 대각(大覺)을 계기로 1916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성립된 한국근대 민중종교의 하나이다.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동학=천도교, 증산교 등 한국근대 민중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 배경에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원불교는 서세동점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가속되는 조선말과 일제하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종교를 통한 새로운 구국운동, 즉 종교적 민족운동의 형태로 성립된 민중종교라 정의할 수 있다.

저축조합 운동

소태산은 1916년 대각을 계기로 영광 일대의 민중들을 결속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운동은 먼저 저축조합(貯蓄組合) 운동이라는 경제적 차

간척지개척 운동

약 1년간의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축적한 소태산과 그 제자들은 1년 뒤인 1918년부터는 영광 백수읍 길룡리 앞바다를 막아 농토로 바꾸고자 하는 간척지 개척운동에 착수한다. 원래 간척지 개척은 단기간에 노동력과 자금을 대거 동원할 수 있는 자본가나 기관단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소태산과 그 제자들은 풀뿌리 민중들의 힘으로 간척지 개척에 착수하였다. 1년이 소요된 간척지 개척운동은 1919년 봄에 약 3만여 평의 농지를 확보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간척지 개척 성공은 소태산을 중심으로 한 영광 일대 민중들의 결속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간척지개척 운동 당시 허가대장 사본

기도결사 운동

그러나, 소태산은 간척지 개척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3·1독립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에는 제자들에게 “창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을 내려 기도결사(祈禱結社) 운동이라는 정신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소태산의 기도결사 운동은 당시의 천도교나 기독교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조직과 규모를 갖추지 못한 처지에서 그 나름의 시국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정신적 차원(또는 종교적 차원)의 민족운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도결사 운동은 8월까지 계속되어 8월 21일에는 ‘혈인(血印)’의 이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1916년 대각 이후 평범한 26세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결속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소태산이 일제의 경찰에 끌려가 1주일 이상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제의 구금으로부터 풀려난 소태산은 마침내 1919년 늦은 가을 영광을 떠나 전북 부안 봉래산(=변산)으로 입산(入山)을

단행하여 칩거에 들어가기에 이른다. 초기 원불교 기록에 따르면, 소태산의 봉래산 입산 목적을 ‘중인(衆人)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태산은 봉래산에서 1924년 봄까지 5년간 새로운 정신운동, 즉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안을 암중모색하였다. 이 시기를 일러 원불교의 공식 교단사(敎團史)인 『원불교교사』는 ‘변산(邊山) 시대’라 부른다. 5년간 지속된 ‘변산시대’에는 원불교의 기본교리 제정(敎綱), 초기교서 초안, 불교계와 교류 및 불교의 교리와 제도에 대한 연구, 단(團) 조직의 시험적 운영, 새로운 종교공동체 창립에 필요한 창립인연의 결속, 모여든 제자들과의 공동체 생활 등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운동, 새 차원의 민족운동 전개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소태산은 1924년 6월, 전북 익산에서 ‘불법연구회’라는 종교 조직을 창립하여 1943년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차원의 민족운동을 줄기차게 실천해 가게 된다. ◆